

피스보트는 글로벌 시티즌의 **2022년**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극빈곤을 지금 끝내자—우리의 미래를 고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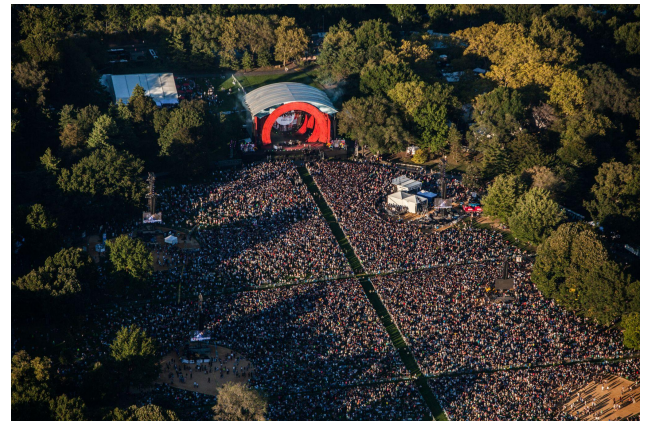
피스보트는 2022년 국제 운동 단체 글로벌 시티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된 "극빈곤 퇴치 - 우리의 미래를 고대하며" 캠페인은 정부, 민간 부문 지도자 및 억만장자들이 '극빈곤 퇴치'에 긴급히 필요한 약속을 촉구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변화가 시급한 세계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 1) 사람들을 가난에 빠뜨리는 시스템 장벽을 깨기,
- 2) 지금 바로 기후를 위한 행동하기,
- 3) 전 세계의 청소년 소녀들에게 시민 공간을 만들어 지지를 보태고 용기를 주기

2022년간 글로벌 시티즌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규합하여 세계 최고의 정치 및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장기적인 일정을 이유로 행동을 미루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피스보트는 글로벌 시티즌과 협력하여 연중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캠페인에는 5월 뉴욕에서 열릴 글로벌 시티즌 상과 글로벌 시티즌 나우를 포함한 여러 주요 행사들이 포함되며, 다양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입니다. 9월에 열리는 축제와 (지난 9월에 열렸던 24시간 축제와 비슷합니다) 6월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을 회원으로 한 저희의 캠페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티즌은 아시아에서의 사회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피스보트와 협력해 현재 빈곤을 종식하며 아시아의 시민 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선상 및 지상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의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COVID-19가 발생하기 전 몇몇 국가에서는 진전이 조금 있었지만, 세계는 여전히 2030년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글로벌 시티즌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Hugh Evans는 말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는 새로운 긴급성과 목적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 협정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고 실패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협정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새로운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끝내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글로벌 시티즌의 2022 캠페인을 지지하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피스보트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요시오카 타츠야가 말했습니다.



글로벌 시티즌은 2030년까지 극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참여 운동입니다. 글로벌 시티즌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극빈곤 시스템 원인에 대해 배우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인 변화에 헌신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보상도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다운로드하여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글로벌 시티즌은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끝내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2,400만 개 이상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지와 노력,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2030년까지 8억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48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지도자들의 약속과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시티즌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